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Counseling Influence in Multicultural Society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문화적 교육상담에 대한 연구

¹ Gi-Jung Han(한기정), ² Chul-Ju Park(박철주),

¹, First Author Ph. D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ungwon University,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 of Th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of Sahmyook University, Korea, Tel:+82-2-3399-1557, E-mail: cjpark@syu.ac.kr

Received: January 10, 2018. Revised: January 21, 2018. Accepted: January 31, 2018.

Abstract

It has become a request of the time that multicultural population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become an issue and a subject of interest in the Korean society. The numbers of foreign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ch as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foreign worker families living in Korea are increasing, which have resulted in a geometrical increase in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ttending school. This leads an assumption that discrimination in terms of race, gender, religion, and culture can occur in school settings and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prone to become the targets of group bullying and school violence.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current poli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and reviewed the meanings and necessity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bove multicultural education. Second, this study classified and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poli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to multicultural education sites by groups. Third, this study selected and organized the increasing demands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assignment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Interest toward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counseling have increased with more researches on multicultural families. It will be thus necessary to accumulate more studies on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ensure internal stability of multicultural-related businesses.

Keywords :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Consulting.

1. 서론

지금 세계는 총 인구 60억 중 매년 3억 이상의 이주민이 이동하고 있다(국제이민기구, 2007). 세계화, 정보화, 산업구조 개편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인구와 다문화 교육이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왜냐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등의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해 결과적으로 취학을 하게 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6,000여 명이었던 전

국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금년 4월 기준으로 30,000명을 넘었고, 그 중에서 읍면지역의 다문화가족 학생 수도 12,000명에 달하고 있다.

Hwang & Yang(2008)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은 중요한 논의할 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 원인으로서는 다문화 교육을 바라보는 합의의 부족과 다문화교육과정에 대한 개발 부족 등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 교육과정 체성 함양에 상호이해 증진과 포괄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의 단순한 적응교육이나 1회성행사, 언어교육에만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제주일보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대다수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와 생활하는 자녀는 언어발달이 늦어져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인종과 성, 종교, 문화의 차별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기 쉬우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 학교폭력을 위해 각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보다 다문화적 접근으로 제시하여보고, 이러한 다문화 상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문화 인구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사회로의 다문화교육의 이행

2.1. 다문화교육의 의의 및 특징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1960~1970년대 시민권 운동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면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인종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으로 개념화되었고, 이후 학교와 관련한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 운동가들은 교과서를 분석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선포하는 노력을 통해 최초의 다인종 교육프로그램을 촉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의한 외국인 노동 인력의 유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전문 인력 진출이 확대되고,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농촌지역 출신의 국제결혼 선호 등으로 국제결혼이민자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와 진정한 개념은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르게 논의되고 있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다양하고 민주적 사회의 실천을 지향함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지지자들은 미국 사회를 샐러드나 천조각을 붙여 만드는 켈트에 비유한다고 말한다(Mun et al., 2009). 이러한 비유는 다양한 크기, 모양, 색깔의 자원과 각각의 재료는 상호 의존적이지만 각각은 아직도 독창적이라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사회계층의 자녀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하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을 변혁하는 개혁 운동이며, 차별을 제거하는 이상적 목표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개혁운동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사회적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인종, 계층, 성,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둘째, 사회구성원 다수의 것과 소수의 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소수의 구성원들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활동이다.

셋째, 다문화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의 활동이다(Kim, 2007).

1988년에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한 캐나다는 다문화교육을 다음과 같이 4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식 언어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를 위한 공식언어교육, 둘째, 모국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수민족 아동의 자부심을 유지하는 문화유지교육, 셋째, 민족 집단에 대한 편견을 교정하는 다문화교육, 넷째, 반인종차별교육 등이 그것이다. 소수집단의 언어와 문화를 국가 정책적으로 강력히 지원하여 ‘모자이크 다문화주의’라는 별칭을 얻은 캐나다 내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이 분리와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ark & Kwak, 2008).

<Table 1> Major policy of multi-culture education in each country

Nation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Education	Major policy
Canada	Enactment of Multiculturalism Law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Multicultural education is presented in 4 different ways.	Public language education, cultural maintenance education, anti-biast education, anti-apartheid education
Australia	Multicultural programs are carried out by different states. Generally centered on language - related policies an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Language education, inter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overcoming racism.
France	It emphasizes French language and culture education and maintains the tendency of fairyland.	French language, French culture, vocational training, and priority areas selected

호주의 경우에도, 주별로 다양하게 특성화된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언어 관련 정책과 문화간 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언어교육(ESL, LOTE(Language Other Than English,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문화간 이해교육이 있으며, 그리고 교육과정 내에서 편견,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화주의적 다문화 정책으로 급선회하여 문화 다양성보다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다(Park & Kwak, 2008).

한편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화 교육을 강조하면서 동화주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5년 프랑스 폭동이 발생한 이후에는 다각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격차를 축소함으로써 통합에 접근하고 있다. 직업교육 확대, 교육우선지역(ZEP)선정 등 지역 중심 교육불평등 현상 해소를 지원하고, 기초 학력보장교육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Park & Kwak, 2008).

2.2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가정 학생 및 교육적 지원 필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학생의 교육격차 해소 및 통합 교육, 일반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5),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9)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차원에서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등을 통해 인종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 자녀 등의 학교 입학, 전학 등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 및 교육청에서는 외국인의 교육에 활용될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근거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내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을 12개 지역의 51개 세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교육청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천사례 나눔대회’를 통해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역 단위의 경험 및 과제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2007년 2월에는 교육과정에 다문화 이해 교육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와 개정 교육과정에 ‘타문화 이해, 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위한 성취목표를 반영하였고, 이에 근거한 교과서는 연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Jun, 2009).

3. 다문화 상담의 의미와 필요성

다문화적 시각은 하나의 독립된 이론이기보다는 다문화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고려해야 할 상담자, 교사, 지도자의 내외적 태도와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적 상담을 상담의 제4세력(the fourth force)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담에서 정신분석학, 행동주의, 인본주의의 뒤를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주의가 상담 영역에서 중심 주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 ‘교차문화적(cross-cultural)’이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Sue et al.,(1982)은 교차문화상담(cross-cultural counseling)에 대한 정의를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문화적 배경, 가치, 생활자세 등에서 차이가 나는 상담관계”라고 내렸다. 그러나 실제로 교차문화상담의 논점이 제기 될 당시에는 백인 상담자가 비백인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되었다.

그러나 비백인 상담자가 생기게 되고, 또 그들이 백인을 상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백인 상담자-내담자 간에도 사회경제적 지위나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자주 발생하게 되자, 이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렇게 볼 때 특히 인종, 민족, 종족적인 차원에서의 차이에 기초하여 명명된 교차문화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며 광의의 문화적 차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이다(Sul, 1993).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상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상담의 기본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다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만남도 그러하다. 같은 나라의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환경과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각 가정의 고유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개별 가족이나 개인적 차이보다 인종,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의한 차이와 차별이 억압이라는 사회 불평등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소수자와 약자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다문화적 접근으로는 이러한 불평등적 요소를 개선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다문화 인구로는 크게 북한 이탈주민, 국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이주 근로자, 유학생 등이 있다. 이들 집단의 숫자와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인 중심의 상담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인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상담이 필요하다. 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함께 성장하고 도움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문화 상담은 전통적 상담과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상담의 초점이 개인으로부터 가족과 문화적 이슈로 옮겨져야 하고, 자기 지향적 조력과 관계 지향적 조력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자가 현재 사용하는 조력적 반응 중에 어떤 것들은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들에게는 부적절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조력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셋째,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문화마다 차이가 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치료자들이 매우 높은 신망을 얻고 있으므로, 상담자들은 문화에 근거한 치료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넷째, 상담자들은 상담실 밖으로도 시야를 돌려서 지역사회 변화의 강조하고, 소수민을 위한 직업기회를 확대시키며, 내담자를 대신하여 개입을 할 수도 있다. 즉 상담자들은 조언자, 옹호자, 토속적 조력체계의 촉진자, 자문가 그리고 변화의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Kim et al., 2010).

4. 다문화 교육상담의 적용 가능성

4.1. 다문화 교육상담의 과제

우리나라에서 ‘전문상담교사제도’를 1999년부터 양성하고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과 ‘왕따’라는 집단따돌림의 문제 등이 학교에서 급증한 이후에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6년 전문상담교사의 양성과정을 형성하였고, 2010년 현재는 교과교사를 상담교사로 전환하고자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편안이 지난 달 발표한 바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창의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과 학습내용을 20% 이상 감축하고, 다양한 수업

방법(사례중심의 학습, 팀 프로젝트, 토론이나 실습학습)을 도입,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과 확대, 수업시간 내 관찰 평가하며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등의 평가시스템 개선, 진로와 진학지도를 심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교과 개편이 끝나면 고교 기술, 가정, 정보와 컴퓨터, 도덕 과목에서 과원 교사가 1,300여명 정도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을 진로, 진학 상담교사로 유도할 방침이라 지난달 한국교직원 신문을 통해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전체 2,225개 고교 가운데 전문 상담교사를 둔 곳은 413곳에 불과하지만 상담교사로의 전환으로 그 수를 늘리겠다고 표명하였고, 이날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입시에만 집중하는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그런 인재를 결코 길러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교현장에서의 상담의 현실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체될 인력을 이용, 상담교사가 증가될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물론 대체되는 교사들의 정체성의 문제와 자질의 문제가 떠오를 수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상담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는 있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발생 이전에 개입,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창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활동을 위해 다문화교육을 활용하여 국제화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과정을 볼 때,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이 문제로 떠오른 이후에야 전문상담교사의 인력배치가 시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교육과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재고와 필요성의 요구가 더욱 증가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더욱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현장에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만큼 다문화사회의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상담적 활동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인 역할, 관련 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다문화 인구의 범위와 논의의 초점에 따라 교육 상담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4.2.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에 따른 상담적용

다문화 인구의 범위는 광의의 문화 개념에 의하면 성, 연령, 계층, 장애 유무, 더 나아가 개인의 성장 배경의 차이로 문화 차이까지 다문화의 논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 이슈의 초점이 되는 다문화 집단은 북한 이탈주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이다. 이들 집단의 현재 모습과 대두되는 교육적 상담적 활동을 제시하고 각 집단별 다문화교육상담의 과제와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Kim et al.,(2010)에서 제시한 다문화 상담 수행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고 다문화교육과 상담에서 기초가 되어야 할 가치관에 대해 재인식하고자 한다.

4.2.1. 북한 이탈 주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5월부터 공식문서들에서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새터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이 본격화된 것은 1996년부터 1998년 3년간,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경제난과 함께 외부정보의 획득, 자유와 희망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이탈로 점차 변하고 있다.

특히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도 주요한 이탈의 원인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 수의 증가로 인해 사회문화적 적응, 지역사회 내 갈등의 문제 등 사회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응의 문제는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바에 따르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은 학업적응이나 교우관계에서 실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낮은 취학률과 높은 중도 탈락율을 보이고 있다(Kim & Kim, 2007).

이와 관련하여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Hu, 2009)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진로발달을 이루어 가는데 부딪히는 각종 장벽들을 극복하고, 진로포부를 높이며 스스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구조화 프로그램이다. 진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동기부여 동영상 시청하고, 진로관련 용어 이해, 남북한 직업세계와 대처방식의 비교, 직업의 의미 이해로 구성되어 주로 진로정보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진로정보 검색방법, 미래의 직업세계 안내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개발, 연구하여 교실과 교육 현장에서 남북한 다문화 학생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상호강화와 상호 이해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2.2.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국제결혼 이민자는 2009년 말 기준으로 125,187명으로, 그중 여성이 109,211명, 남성이 15,876명을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09). 국제결혼 이민가족 중에서도 이주여성 가족이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여러 가지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향후 1~2년 이내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과 진로발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의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의 교육문제는 교육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었다.

1970~1980년대의 미국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하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적응과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들 다문화가족들은 한국어능력,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접근의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입체적 사고를 통한 입체적 접근으로 다문화상담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이 곧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어머니의 언어와 심리, 적응, 교육의 문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이 크고, 아동 초기 사회적 경험과 부모, 학교, 환경의 여러 가지 변인들은 자녀의 앞으로의 미래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잠재인력의 유효성을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이다. 그렇기에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고 이러한 소수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법 개정,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4.2.3. 외국인 이주 근로자

저출산과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현상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었다. 1990년대 초에 5만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발효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력 고용이 합법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고용상태 개선 및 근로자로서의 권익 문제와 아울러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소수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부모 세대에서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교육적 좌절을 물려주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이주 근로자의 자녀는 부모보다 한국어를 빨리 쉽게 배우지만, 생활언어와 학습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학습언어를 능숙하게 익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기회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Kim & Kim, 2007).

이와 연계하여 교대생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과 지도, 숙제지도, 상담, 문화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도록 하여 초등 예비교사의 다문화가정 학생 및 교육에 대한 관심제고, 인식 개선 등을 위한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약 2,000명의 대학생이 멘토링에 참여, 그들에게 각각 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봉사학점을 부여하였다(Jun & Song, 2011).

실제 각 대학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활지도와 학습지원의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 좀 더 학교와 개인, 집단, 또래 간의 문제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 다문화자녀가 겪을 낮은 자존감이나 다른 문화와 인종의 차별로 인한 심리적 문제와 갈등이 해결하기에는 부모, 학교간의 시스템의 한계점을 지니는 것이 현실이다.

<Table 2>Application of counseling based on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in Korea

Type	Problems	Program
North Korea defectors	Challenges of Socio-Cultural Adaptation, Conflict in Communities, Problems with Children's Education	The Use of Career Certifications for the Youth
International Marriage and Women's Family	Social and Economic Difficulties, Problems with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and Career Development	Revision of the Law and the System and Preparation of Education Support Measures
Migrant workers	Improve employment, employee rights, and child education	Use of student mentoring programs

4.3. 외국인 유학생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제 해외 유학생을 만나게 되는 일은 드문 경험이 아니다.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해외 유학생의 수는 63,952명에 이른다. 이들 출신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 아프

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 6대륙으로서 가히 세계적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2008).

국내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더욱 적극 나서게 될 것이고, 해마다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는 우수 인적 자원 확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서비스의 제고방안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다문화적 자세와 태도가 중요할 것이며, 이것은 곧 자국에 우호적인 세계인사의 양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제도의 시스템이 더욱 구축이 된다면, 이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혹은 단순한 유학생으로 여기지 않고, 다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인력의 활용을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사업이나 홈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상호 강화되고 국가와 학문 그리고 대학 발전에 중요한 과제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인구들을 위한 정책적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문화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상담자보다 다문화 인구들을 접해 보지 못하고 다문화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험적 연구와 사례연구 그리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만 쌓고 있는 상담자들이 더 많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위한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설정된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둘째,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증진이다(Jun & Song, 2011). 이러한 정책 목표추진을 위해 교육 강화 전략과 교육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지역기관 연계는 필수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교육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수용성과 증진, 이해의 폭은 좁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이 다문화상담으로 이어져 문화이해와 수용으로 대화와 이해의 장이 넓혀져야 할 것이다. 상담을 함에 있어서도 상담자마다 다문화 경험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과정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 상담에서도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상담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Kim et al.,(2010)의 ‘진로상담이론’에서 다문화진로상담으로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인증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진로상담이라 판단하여 다문화진로상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문화상담에서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한 상담전략을 바탕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주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4.3.1. 다문화이해와 인식 전환

다문화교육이나 다문화상담자는 인종, 성, 종교, 문화적 차별성에서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Hwang & Yang(2008)의 논의에 따르는 합리성의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의 관심부족,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인증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다문화상담자의 몫이라고 보고한다. 이주민과 그 자녀들을 포함하여 다문화 인구들은 생존과 자아실현을 위해 이 땅에서 ‘일’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기초적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만 이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다문화적 현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에 단순하게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시혜를 베푸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일부 모습 중 우리 민족과 ‘다른’ 사람을 보면 편치 않은 감정을 느끼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소외시키는 모습은 가장 먼저 극복되어야 할 일이다.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 자기 이해와 가족, 문화, 나아가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면 다문화 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상담은 접근방법에서는 차이가 날지라도 취지만큼은 동일한 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4.3.2. 상담자의 평등의식과 인권의식 고양

상담자 자신의 평등의식과 인권의식도 고양되어야 한다. 인류는 사고, 감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유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음에 새겨 둘만하다. 출신 문화가 다르므로 인해 내담자가 자신을 상담자에게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에게도 존중과 공감과 순수한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직업으로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려는 성장 동기가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Kim et al., 2010).

다문화상담에는 상담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생계의 문제와 다른 문화에서 가지는 낯선 주제에 관심을 보일지라도 인내심 있게 문제를 살펴보고, 정보를 제공하고, 타국의 낯선 환경과 분위기로 더욱 익숙하지 않을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함께 탐색하는 진입방안과 적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3.3. 다양한 문화권별 특징 이해

상담자의 평등의식과 인권의식이 다문화 내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출신 문화권별로 특징과 각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담자의 문화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담자가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또한 어떤 경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등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문화 내담자의 민족이 갖는 민족적 주요 흥미, 가치, 적성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도 가지고 있어야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 활동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더욱 실시되어야 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상담자들 간에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4.3.4. 다문화 교육 강좌 및 교과목 개설

다문화상담을 유능하게 수행하는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나 대학원의 상담자 교육과정에 다문화 상담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Kim et al., 2010).

2008년 기준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 초등학생이 84% 이상이고, 교사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추지 못해 당혹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직 교사에 대한 연구와 준비뿐만 아니라 앞선 예비교사 단계에서 다문화 교육과 상담의 방법 및 내용에 대한

학습 및 준비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어야 한다. 다문화교육, 다문화상담과 관련한 강좌 및 교과목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을 구성하고 있는 문화권별로 각 나라의 관련 특징을 탐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각 문화권별 상담자가 양성되면 좋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차후 우리나라 이주민들의 동향을 고려하여 예비 상담전문가 각각의 선택에 맡겨야 할 듯하다(Kim et al., 2010). 특정 문화권 내담자를 다루는 상담전문가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그 문화권의 언어도 상담자가 먼저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Table 3> Multi-culture education of foreign students

Major Programs	Purposes
Multiculture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Transformation	Multicultural counselors have to take a supremacist attitude in race, gender, religion, or cultural difference and seek greater rationality.
The promotion of the sense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counselors.	The sense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of the counselor herself should be enhanced
Understand the different cultures of different features	Counselors should have characteristics and knowledge of each country by client's culture
Multiculture Education Course and Course Establishment	Multicultural counseling must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of counselor teaching at universities or graduate schools in order to cultivate counselors who perform multicultural counseling
Employment of multicultural consultants and support lifelong education	Need to hire someone from multicultural in a multicultural office and support lifelong education
Standardization of Psychological Testing by Different Cultures	Content related to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needs to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to effectively utiliz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4.3.5. 다문화상담사 고용 및 평생교육 지원

다문화상담실에 다문화 출신의 상담원을 고용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적극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자뿐 아니라 통역자나 교육자도 필요할 것이다. 결혼이민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이들의 학습과 문화이해, 정보화 등을 위한 교육이 지원 중이지만 상당수가 한국 적응 및 통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Jun & Song, 2011).

다수의 유학생이 있는 문화권에 대하여는 해당 문화권 출신의 상담자를 고용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상담소의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으로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며, 다문화 상담원들 및 내담자들을 통해 해당 문화권에 대한 지식들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개발 한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교육대상자이자 내담자인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3.6. 다양한 문화권별 심리검사 표준화

다문화 이해교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필요한 심리검사 등의 상담도구와 정보들도 다문화적 상담도구로 다문화 내담자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표준화해야 하며, 직업정보들도 소수민들의 언어로 신속하게 해석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는 특히 이주 1세대 내담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이주 2~3세대 내담자들에게도 이 작업은 필요하다. 이주 2~3세대일 경우,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지 않아 부모의 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부모의 출신국가 언어로 된 상담자료나 정보들이 필요하다(Kim et al., 2010). 이는 국제화시대에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문화사회에 대처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하우를 생산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하나의 독립된 이론이기보다는 모든 교육과 상담에서 반영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의 정책을 먼저 살펴보고, 문제의식을 함양, 다문화 교육을 넘어 다문화상담의 의미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이를 다문화 교육의 현장에 적용가능한지와 각 다문화 집단별로 분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사회에 더욱 늘어가는 다문화 상담의 요구들과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제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그동안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정부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이들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교육적 소외계층으로 보고, 우리 사회 적응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 문화적으로 소수그룹이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생활 등에 익숙지 않음으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스스로에 대해 갖는 인식 등을 바꾸는데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문화상담과 같은 학교와 교육 안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Jun(2009)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학교와 교육현장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 및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호 이해 및 존중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할 때가 지금이다. 다문화 관련 연구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문화 상담분야의 관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차후를 위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상담에 대한 연구들도 축적되어 다문화 관련 사업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Hu, E. Y., & Kang, H. Y. (2010). Development of Career Guidance Program for the Newly Settled Youth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3(4), 39-55.
- Hwang, K. H., & Yang, Y. J. (2008). Issues of Multicultural Contents in Korean Societ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6(2), 57-85.
- Im, E. M., Jung, S. J., & Kim, E. J. (2009). Multi-Cultural Studies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Studie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Counseling*, 10(3), 1291-1304.
- Jun, K. S., & Song, M. K. (2011). Research of the Differences of Adjustment Level by Multicultural Children's Nationa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1), 305-330.
- Jun, W. H. (2009).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2(2), 125-148.
- Kim, B. H., Lee, J. K, Yoo, H. S., Hwang, M. H., & Kong, Y. J. (2010). *The Career Counseling Theory*, Hakjisa.
- Kim, C. H. (2009). Direction of Multiculture Human Right Education in Multiculture Society, Korea Human Rights and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Kim, H. U., & Kim, D. J. (2007). Multi-Cultural and Its Educational Challenge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34(3), 153-176.
- Kim, S. H. (2007).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JungAng Damunhwa gyoyuk Center.
- Kim, T. H. (200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Consultative Ability of Career Counselor, Career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10th Colloquium Report.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2008). *Foreign Student Statistics in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2008). *Plans and Measures to Support the Education support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2009). *Plans and Measures to Support the Education support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Cooperation Bureau.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 *Measures and Plans to Support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Measures and Plans to Support Education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Mun, S. H., Kim, Y. C., & Jung, J. H. (2009).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Seoul, Academy Press.
- Oh, S. B. (2007). A Study of the Instance of Opportunities of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 Policy for Ethnic Minorities's Children Born in Intermarriage Homes. *Journal of Human Studies*, 12, 33-56.
- Park, S. H., & Kwak, H, Y. (2008). A Analysis on the Laws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2(3), 687-707.
- Sul, K. M. (1993). The Indigenization of Consultation from a Multiculturalism Point of View and the Possibility of Korean Counseling. *Dong- A Students Studies*.